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박*정
파견국가	Sweden	파견도시	Örebro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14년 8월 ~ 2015년 6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는 스톡홀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Örebro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 기숙사를 포함한 전체학교의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거나 작은 정도이다. 캠퍼스 내에 경사가 없어 걸어 다니기도 편하고 한겨울을 제외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좋다. 대부분 낮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름에는 캠퍼스주변에 숲들이 있어 산책해도 좋다. 반면에 겨울에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2014-2학기 수업	<p>스웨덴 Örebro University는 특이하게 약 한달에 한 과목씩 듣는 체계이다. 또한 과목당 학점은 7.5점으로, 한국학점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점인정 받을 때 학과와 잘 조율하여 인정받아야 한다.</p> <p>*Communication and Rhetoric in English 1 수업이 이뤄지는 5주 중 1, 2주정도 이론수업이 진행되고, 후에는 영어말하기 수업이 대부분이다. 주제를 정해주면 seminar에서 발표를 한 후에 feedback 시간을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폭넓은 내용을 이야기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점(ex. 논리, 전달력 등)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ssay과제가 주어지기도 했다. 도서관에 Writing Center를 이용해볼 것을 추천한다.</p> <p>*Communication and Rhetoric in English 2 위 과목과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더 소수인원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었다. Presentation과 Debate, Essay를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토론수업이지만 다음수업에서 또 그 다음수업에서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되고 알차게 토론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p>*International Logistics</p> <p>전공과목인데 한국물류수업과 비슷하게 지루했다. 전공이 꼭 필요하다면 들어야겠지만 관심이 가던 과목은 아니었다. 과제는 개인과제, 그룹과제, final exam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과 다르게 재시험이 한달 쯤 후에 한번 더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 시험문제지를 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데 미리 정리하고 공부하면 될 것이다.</p> <p>*Gender Equality and the Swedish Welfare System</p> <p>크리스마스연휴로 3주간 수업이 없던 과목이다. 어찌 보면 꿀과목일 수도 있지만, 별로 얻은 게 없어 아쉽기도 한 과목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유럽여행을 할 수 있었다!! 북유럽의 유명한 복지체제의 역사, 과정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크리스마스 연휴 후에 수업내용과 관련한 과제가 있다.</p> <p>*미국처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진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p>
<p>2015-1학기 수업</p>	<p>*Swedish Language and Culture 1</p> <p>모든 학생들이 스웨덴어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할테지만 스웨덴어의 구성, 역사, 문화특징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컴플레인도 해봤지만 스웨덴어는 배우지도 못했었다. (스웨덴어를 배우고 싶다면????? 스웨덴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이 따로 없고 교환학생들을 위한 language café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진 않는다. 날짜도 마음대로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환학생을 통솔하는 스웨덴어를 하는 외국인들이라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p> <p>*Outdoor education and recreation</p> <p>교환학생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수업이다. 과목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밖에서 캠핑을 하면서 불피우기, 식사준비하기, 사우나만들기, 컨츄리 스키, 말타기, 좁은동굴탐험, 암벽등반 등 여러가지 activity를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부가적인 비용(약 3000-3500SEK)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국에서 마음먹지 않으면 못할 활동들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이루어지는 수업이라 추워서 침낭, 따뜻한 옷은 필수이다. 또한 교수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말씀도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신다. 헤어질 때 유일하게 아쉬웠다.</p>

	<p>*Diversity in classroom</p> <p>교육자(선생님 또는 상담사)가 되려는 학생을 위한 수업으로 School placement, seminar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Reading material도 많고, 책 속의 주제나 교수님이 내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seminar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나와는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알 수 있고, 토론하는 주제들도 다양해서 재미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전공이었지만 아닌 학생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잘 따라갈 수 있다.</p>
프로그램 운영	<p>약 3주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교환학생들을 그룹별로 나눠주는데 같이 pre-party나 여러 theme의 party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외레브로 시내투어, 작은 규모의 체육대회 등 여러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교환학생들을 위해 오로라, 러시아, 발트3국 등으로 떠나는 여행들이 있다. 오로라여행에 참여했었는데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다.</p> <p>오리엔테이션 초기에 IKEA에 단체로 버스로 이동해서 조리기구, 냄비나 후라이팬, 이불 등을 살 기회를 준다.</p> <p>(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스웨덴어를 배우고 싶다면????? 스웨덴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이 따로 없고 교환학생들을 위한 language café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진 않는다. 날짜도 마음대로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환학생을 통솔하는 스웨덴어를 하는 외국인들이라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p>

3. 생활전반

구분	(서술형)
날씨	<p>전반적으로 추운 지역이다. 8월 중순에 도착했었는데 금방 긴 팔을 입고 다녔던 것 같다. 겨울에는 당연히 춥고, 여름에도 더운날이 거의 없다. 6월 초에 스웨덴을 떠났는데 반팔을 입을 일이 없었다ㅎㅎ 그러므로 패딩, 두꺼운 코트, 내복이나 레깅스, 두꺼운양말, 부츠는 필수이고 침낭이 있다면 겨울유럽여행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조그마한 찜질기가 있다면 가져가도 좋다.</p>

안전	<p>매우 안전하다. 그래도 밤에 혼자서 먼 거리를 다니는 건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숙소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은 Studentgatan이었고, 캠퍼스와 가장 가까운 기숙사이다. 방은 혼자서 사용하고 화장실도 방에 딸려있다. Corridor는 8명에서 share하도록 되어있고 부엌을 같이 사용한다. 분위기는 코리도마다 다른 것 같은데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미국기숙사와 다르게 기숙사내에서 술도 마실 수 있고, 파티를 열 수 있다. 가끔씩 시끄럽기도 하니 집중해야 할 때나 잠잘 때 예민한 사람들은 귀마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환학생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 꼼꼼하게 검사한 후 벌금을 물기 때문에 청소를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학교에서 도보로 10분거리, 20분거리에 마트가 3개나 있어서 장보기도 편하다. 물론 자전거를 산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다. 캠퍼스내에서 케밥이나 피자를 사먹으면 60-90SEK 정도이고, 시내 레스토랑에서 사먹으면 90SEK이상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은 더욱 비싸다. 그러므로 집에서 해먹는 것이 좋다. 밥술도 구할 수 있는데, Marieberg에 있는 쇼핑몰 내 Clas ohlson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내에 CHINESE TRADE MARKET이 있어서 쌀, 된장, 고추장, 김치, 떡 등도 구할 수 있다. 과일도 대부분 마트에서 사먹을만 하다. 장볼 때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먹던 맛과 다른 식품도 몇가지 있으니 조금씩 사기를 추천한다(ex. 플레인요거트는 맹맛이다, 딸기가 달지 않다, 미트볼이 짜다 등)</p>
교통	<p>학교캠퍼스(Studentgatan station)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는 대체로 20분-30분에 한대씩 있는데 가격이 18SEK정도로 꽤나 비싼 편이다. 환승은 3시간 내에 한번 가능했던 것 같다. 시내까지 가는 길에 ICA, WILLYS, COOP같은 마트가 위치해있어서 자전거가 없다면 버스를 타도 좋고, 캠퍼스와 제일 가까운 ICA MAXI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나는 중고자전거를 구입해 편하게 다녔지만 선택은 본인이 해야할 것 같다. 시내까지는</p>

	<p>버스로 30분내로 갈 수 있고, 시외버스정류장(Örebro Resecentrum)이나 기차역은 10분 정도 더 걸려서 약 40분이 걸린다. 개인여행갈 때 이용하게 될 텐데 승차시간에 맞춰 촉박하게 가면 놓칠 수도 있다. 대중교통시간을 매번 맞추기 어렵다면 싼 중고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To Arlanda Airport in Sweden=85만원 (왕복으로 사면 더 싸다.)	
Fees	Orientation 비용=약 12만원	
보험료	Samsung Global Care Insurance=28만원	
숙소	Studentgatan의 경우 3008SEK/달 한학기예 15,040SEK	
식비	대충 한달에 30만원	
교통비	자전거값 700SEK+수리비 600SEK 버스비 18SEK씩	
책값	전공책과 대부분의 교양 READING MATERIAL은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EBOOK으로 봄	
기타1	겨울유럽여행 약 300만원	
기타2	여름유럽여행 약 500만원	
합계	약 2500-3000만원 예상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스웨덴은 한여름을 제외하면 반팔, 반바지를 입을 일이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는 한여름이 되기 전에 떠나기 때문에 학기가 끝난 후 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반팔이나 반바지가 많이 필요없다. 따라서 겨울옷이나 내복, 이불, 찜질기 위주로 짐을 싸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보내는 택배는 1KG에 8000원정도지만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너무 비싸다(11KG에 18만원정도). 또한 스웨덴택배는 캐리어를 보낼 수 없고 박스를 이용해서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버리고 와도 되는 옷이나 부피가 작은 오리털이불 등을 가져가면 택배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생활을 말하자면 교환학생 대부분이 유럽학생들이기 때문에 유럽문화를 미리 공부하거나 TV를 통해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애기도 더 잘 통할 수 있고, 애깃거리가 생길 것 같다. 또한 토플로만 영어공부를 했다면 회화적인 표현을 외국드라마를 통해 배워가는 것도 좋다. 나의 경우에도 처음에 가서 괜히 겁을 먹고 말걸기를 어려워했었다. 그런데 그게 내성이 생기면 점점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나는 한식을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한식이 없으면 못 견디는 학생들에게는 국물을 낼 멸치, 다시마 등을 가져갈 것을 추천한다. 가서 잘 먹어야 타지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한식을 조금 가져가도 좋고 택배로 받아도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교환학생생활을 통해 색다른 기분을 느꼈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았다. 비록 비용이 만만치는 않았으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들을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학교수업에 관해 말하자면, 토론식의 수업이 처음에는 적응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지고 재밌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직업에 대한 흥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둘째로는 내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외국인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는 것이다. 유럽친구들보다는 아시아친구들이 편하긴 했지만 고루고루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인데 먼저 살갑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유럽여행이나 학교여행을 통해 유명한 박물관, 흥미로운 유적지, 아름다운 경관, 새로운 친구들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서 더욱 값진 경험이었다. 여행할 때 그냥 가서 영혼 없이 구경하기 보다는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 유적들을 공부하고 보면 더 느끼는 게 많을 것 같고 지루하지 않은 여행이 될 것이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즐거운 학교생활&여행을 하고 오길 바래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만큼 후회나 아쉬움 없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오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도 그리고 가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Örebro Castle 주변</p>	<p>Stockholm</p>
	
<p>Aurora Trip</p>	<p>겨울여행</p>
	
<p>겨울여행</p>	<p>New year firework</p>

	
<p>기숙사 겨울풍경</p>	<p>런던빅벤</p>
	
<p>런던야경</p>	<p>여름여행 터키유적지bb</p>
	<p>사진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멋진 각 도시의 야경, 흥미로운 유적지들, 해변에서의 휴양을 교환학생 기간 중 유럽여행을 통해 즐길 수 있었다.</p>
<p>여름여행</p>	